

# ‘아빠 육아휴직’ 광주·전남 5년 새 4배 늘었다

### 광주 2017년 186명→지난해 794명, 전남 348명→1303명 증가 보너스제·코로나 돌봄공백 영향...아빠들 육아용품 ‘큰 손’ 떠올라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박모(39)씨는 지난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갔다. 본인의 직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은 첫 사례라고 한다.

박씨는 “새벽마다 수유를 하고 피곤해하는 부인이 안쓰러워 3개월간 육아휴직을 내고 함께 아이를 돌보고 있다”며 “직장에서 첫 사례라 부담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회사 구성원 모두 응원해줬다”고 말했다.

공무원인 김모(40)씨도 지난 1년간 육아휴직을 마치고 다음달 복직한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휴교를 반복하고 재택수업을 하는 등 낯선 환경 속에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휴직에 들어갔었다.

김씨는 “부인은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상태로, 자녀들만 집에 둘 수 없어 휴직을 택했다”며 “휴직기간 아이들과 친해지고 추억도 쌓을 수 있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5년 전보다 4배 가량 증가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시행 등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자녀 돌봄에 공백이 생기면서 육아휴직에 나서는 남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들고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 등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육

아용품 구매에 아빠들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30일 고용행정통계 시스템 ‘모성보호지급자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남성 육아휴직 순지급자수는 지난 2017년 186명에서 2018년 355명으로 90.86%(169명 ↑)나 증가했다. 이후 ▲2019년 558명(전년 대비 57.18%·203명 ↑) ▲2020년 712명(27.60%·154명 ↑) ▲2021년 794명(11.52%·82명 ↑) 등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 사이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4.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남성 육아휴직 순지급자수도 ▲348명 ▲621명(78.45%·273명 ↑) ▲931명(49.92%·310명 ↑) ▲1135명(21.91%·204명 ↑) ▲1303명(14.80%·168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5년 전보다 3.7배 이상 늘었다.

특히 올 1~2월 남성 육아휴직 순지급자수는 광주가 44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06명)보다

9.36% 증가했다. 전남지역도 올 1~2월 666명의 남성들이 육아휴직에 들어가 전년(575명)보다 15.83% 증가했다는 점에서 올해 역시 남성들의 육아휴직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례가 늘고 코로나19로 ‘집콕’이 증가하면서 육아용품의 남성 구매자 증가율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온라인쇼핑몰 육성이 지난 한 해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아용품 카테고리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유모차용 장난감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0% 증가했고, 유모차 시트는 264%, 학습 완구는 310% 각각 매출이 늘었다. 이우식 보관용기(355%), 탕온계·육실온도계(109%), 유아외출용품(312%) 등도 큰 폭으로 매출이 뛰었다.

특히 구매자를 성별로 분류했을 때 대다수 품목에서 남성 구매자 증가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

다.

조사 기간 유모차는 남성 구입자가 23% 늘어 여성 구매자 증가율(12%)보다 높았다. 유모차 시트도 남성 구입자가 350%나 늘어 여성 구매자 증가율(230%)을 웃돌았다.

유모차용 장난감은 여성 구매자가 152% 증가하는 동안 남성 구매자는 380% 늘었다. 탕온계·육실온도계도 남성 구매자 증가율이 182%로 여성 구매자 증가율(50%)보다 높았다. 학습 완구를 구입한 남성 구매자는 310% 증가해 전년보다 4배 이상 늘었다.

지역 유통업체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가사는 물론,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고 있고 남성들의 육아휴직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육아용품 시장에서 아빠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상공의 날’ 광주 기업인·근로자 등 6명 산업부장관 표창



정홍식 대표, 구본훈 대표, 이용기 지점장, 송우종 차장, 김희차 차장, 이창엽 대리

제49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광주지역 기업인과 근로자 등 6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3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9일 열린 제49회 상공의 날 행사에서 지역 경제발전 기여한 공로로 정홍식 ㈜에어팩스 대표이사과 구본훈 네오테크㈜ 대표이사과 산자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지역 기업 모범 관리자를 대표해 이용기 하이 트진로㈜ 특판광주지점장을 비롯, 송우종 기광산업㈜ 차장, 김희차 신한네트웍스㈜ 차장, 이창엽

㈜엘에스티 대리 등이 각각 산자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정홍식 대표는 21년간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다수의 특허와 인증을 획득, 이를 바탕으로 고효율의 냉·난방 공조기와 환기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등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구본훈 대표는 2002년 창업 후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로 고효율의 열교환기와 펌프를 개발·공급했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주력산업의 환경친화적 고도화와 비즈니스모델의

다변화를 동시에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밖에 이용기 지점장은 지자체와 연계해 저소득 청년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을, 송우종 차장은 철저한 품질관리와 자동차 부품 분야 기술개발로 자사의 생산성 향상과 매출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희차 차장은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고, 이창엽 대리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근로자의 복지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시멘트 대란’ 건설 현장 멈추나

### 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급 대란 레미콘 단가 20% 인상 요구 4월 전국 건설현장 셧다운 우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엔탄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멘트 수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봄철 건설 성수기에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지역 건설 현장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지역 레미콘업체에 따르면 이달 레미콘 업체들은 각 건설현장에 레미콘 단가 20% 상단을 인상해달라는 내용의 납품단가 조정 협조 공문을 보냈다.

레미콘 가격 인상 요인별 비중은 시멘트 6.9%, 골재(모래·자갈) 8.5%, 유류비 및 운반비 5.3%, 고정비 및 안전·품질 강화비 2.8%로 총 23.4%다.

유엔탄 가격 폭등으로 시멘트 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골재와 유류비, 운반비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값이 모두 올라 레미콘 가격을 올리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시멘트 재고량 역시 전국 출고량이 단 2~3일 물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4월 전

국 건설 현장이 ‘셧다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유엔탄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의 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유엔탄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가격도 전년 대비 4배 이상 폭등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레미콘 주원료인 시멘트가 크게 오르고, 이의 원자재 가격이 모두 상승하자 지역 레미콘업체 또한 건설업체가 원가 인상을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을 경우 ‘납품 중단’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의 한 레미콘업체 관계자는 “30평 규모의 집을 짓는데 투입되는 레미콘은 900만원 상당으로 1평당 분양가에도 미치지 않지만 건설업체들은 납품단가 반영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며 “납품단가 연동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는 공사현장 중단으로 건설산업은 물론 관련 사업 전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모두 원자재 인상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삼성전자, 태국 방콕 홍보관에 ‘더 월’ 설치  
삼성전자는 최근 태국 최대 부동산 개발 업체인 MQDC가 방콕에 개발하고 있는 초대형 주택단지 ‘더 포레스티아스(The Forestias)’ 홍보관에 마이크로 LED ‘더 월(The Wall)’을 설치했다. 더 월은 가로 12K·세로 8K 해상도, 약 2억개 픽셀로 구성된 초고화질을 지원한다. 크기는 가로 38.7m·세로 3.6m로 약 140㎡다. 더 월 앞에서 삼성전자 태국법인 관계자들과 MQDC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 장애인 신규채용 소규모 사업체에 장려금 지원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데도 장애인을 채용한 소규모 사업체는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장애인 신규고용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 사업주’가 올해 1월 1

일 이후에 장애인을 새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상시근로자가 32명 이하인 사업체는 장애인 노동자 1명에 대해, 33~49명인 사업체는 2명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 액수는 장애인 노동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다르다.

6개월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 장려금은 180만~480만원이며 1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때는 360만~960만원이다.

다만 장애인 노동자 월급(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60%가 장려금 지급 단가(월 30만~80만원)보다 적으면 ‘월급의 60%’가 지원 기준이 된다.

장려금 신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와 온라인(www.esingo.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비대면 업무 확대·구조조정 여파 지난해 은행 점포 311개 줄었다

은행의 비대면 업무 확대와 점포 구조조정 여파로 지난해 국내 은행 점포가 311개 문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은행 점포는 전년보다 3개 줄어든데, 지방은행 6곳 가운데 가장 감소 폭이 적었다.

금융감독원이 30일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 점포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국내은행의 점포는 총 6094개로 전년 말보다 311개(-4.9%) 감소했다.

신한은행이 75개로 가장 많이 줄었고 국민은행(58개), 우리은행(53개), 하나은행(38개), 부산은행(20개), 경남은행(14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18년 23개, 2019년 57개, 2020년 304개가 줄어드는 등 감소 규모가 매년 커지는 추세다.

은행 종류별로 보면 시중은행의 점포 감소 규모가 230개로 전체의 74%를 차지했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57개와 24개였다.

광주은행 점포는 2020년 말 146개에서 지난해 말 143개로, 2.1%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 폭은 6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적었다. 감소율은 경남은행 9.6%(146→132개), 부산 8.6%(232→212개), 제주 6.1%(33→31개), 대구 5.5%(235→222개), 전북 5.2%(97→92개), 광주 2.1% 등 순이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권 소재 점포는 244개 줄어 전체 감소분(311개)의 78.5%에 달했다.

금감원은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확대와 점포 효율화 추진 등으로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점포 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되 노령층 등 금융이용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은행권이 추진 중인 우체국 창구 제휴, 은행 공동 점포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에 에디슨EV 상폐 위기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대금 마련을 목적으로 인수했던 쌍용차 에디슨EV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에디슨EV 부실화가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 무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화회계법인인 에디슨EV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내렸다.

감사의견 거절 결정을 받으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에디슨EV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중지된다.

에디슨EV는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상폐 여부 결정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

삼화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에서 “매출 증대 등을 통한 재무개선 및 유동성 확보 계획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며 “이러

한 불확실성의 최종 결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의 항목에 대해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존속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통제 활동이 적절하게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계속기업 가정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46.74 (+5.67)
▲ 코스닥	939.07 (+1.24)
↓ 금리(국고채 3년)	2.615 (-0.085)
↓ 환율(USD)	1209.60 (-10.20)